

[남들보다 한 걸음 더 내딛는 지원자, 강혜진입니다!]

[새로운 분야를 적극적으로 배워 나가는 태도]

학부생 시절, 창업학 전공 수업들을 수강하며 6 개의 창업 아이템 기획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습니다. 이 경험들 덕분에 새로운 정보와 지식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. 그 중에 블록체인기술과 예술 산업의 결합인 사업아이템 'BlockFast (블록페스트)'는 IT 에 관심을 갖게 해준 가장 큰 계기이자 시련이었습니다.

위 아이템은 예술 시장에 만연한 암표 문화 근절을 위한 티켓팅 플랫폼입니다. 프로젝트 초기, 콘서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블록체인 기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아이템의 컨셉과 조사 방향성을 잡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그러나 위 프로젝트의 주제는 바꿀 수 없었기에 저는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. 벤치마킹할 기업(네덜란드 블록체인 티켓팅 기업 거츠(GUTS))를 조사하고, 아무 말 없던 팀 단체 채팅방에 제가 찾은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. 저의 작은 행동이 다른 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고, 저희는 팀 프로젝트 기간 동안 각자 알아온 정보와 의견들을 바탕으로 10 여 차례가 넘는 피봇팅을 할 수 있었습니다.

배움에 대한 행동의 변화 덕분에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던 수업에서 교수님의 인정을 받고 이에 이어 Start-up 데모데이 때 대학생 팀 중 우수팀으로 선발돼 산업은행장상을 수료하는 쾌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또한 블록페스트 이후 자신감을 얻어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도전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.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IT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, Java 언어에 도전하여 중앙 HTA 에서 Java 와 Spring 기반 웹 개발 훈련을 수료하였습니다.